

보도시점 2026. 8. 30.(일) 11:00
< 8. 31.(월) 조간 > 배포 2026. 8. 28.(금)

산업 ODA, 9월부터 KOTRA가 관리한다

- 2012년부터 14년간 KIAT가 관리해 온 업무를 KOTRA로 이관 -
- KOTRA 해외네트워크 활용, ODA의 기업 진출 지원 마중물 역할 본격화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8월 31일자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이하 산업 ODA) 업무 인계인수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9월 1일부터 KOTRA가 산업 ODA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 ‘산업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돕는 인도적 목적 외에 우리 기업의 진출도 지원하는 상생형 ODA 사업으로, 2026년 예산은 312억원

이번 업무 이관은 신흥국 경제 발전을 돕는 목적과 더불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상생형 ODA’로의 본격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2012년 산업 ODA가 신설된 이후 14년간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온 KIAT의 관리 노하우에 더해 KOTRA 해외 무역관을 전초기지로 활용해 현장 중심의 사업 관리와 기업 진출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KOTRA는 기존에 참여해 오던 재정경제부의 ODA(KSP, EIPP)와 산업 ODA를 함께 관리함으로써 ODA 간 연계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ODA가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개척을 이끄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되고, 자원 부국과의 공급망 협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 KSP(경제발전경험공유), EIPP(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는 협력국 경제발전 정책 자문 성격의 ODA 사업이며, KOTRA는 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총괄기관으로 참여 중

산업부 배준형 통상협력국장은 “KOTRA로 사업을 이관하는 것은 단순한 관리기관 변경이 아니라 정책의 초점을 철저하게 국익과 기업 지원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KOTRA가 ODA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통상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정근용 (044-203-5680)
		담당자	사무관	김윤주 (044-203-5687)



참고

「산업 ODA」 사업 개요 및 관리기관 이관 현황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 개발 원조)

- **(사업 개요)** 산업부는 2012년 산업 ODA 신설 이후 14년간 개도국 35개국에 총 5,931억원(103개 과제) 지원



* 2017년 신설된 '에너지 ODA'는 정부 조직개편으로 2026년 기후에너지부로 이관

- **(유형)** ①3~5년간 약 100억원을 지원해 산업육성 거점을 구축하는 '프로젝트형', ②2~3년간 약 10억원을 지원하는 '기술지도형'으로 구분

* ① **프로젝트형**(HW+SW): 수원국 제공 부지·건물에 장비·기자재 공급, 산업육성 센터 기능

② **기술지도형**(SW): 우리 기술인력이 수원국에서 애로 해소, 인력양성 기능 수행

- **(성과)** 사업을 통해 약 2,280억원 규모의 국산 기자재 수출이 있었고, 센터 운영과정에서 약 2,330억원 규모 후속 수출 성과 발생

- ODA로 조성된 센터에서 양성된 전문·숙련 인력을 한국 협력사 등 진출기업과 현지 기업에 제공하는 인력 양성 기능도 수행

- **(관리기관 이관)** KIAT는 지난 14년간 산업·기술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왔으나,

-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관리기관을 KOTRA로 이관하여 현장 중심의 사업 관리 및 기업 지원을 강화

관리기관	(기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변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설립 목적	▶ 산업기술 혁신 및 기술사업화 지원	▶ 무역 진흥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핵심 기능	▶ 산업기술 R&D 기획·관리 ▶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	▶ 86개국 132개 해외무역관 운영 ▶ 수출·투자 촉진 및 국제 협력
강점·특성	▶ 국내 산업·기술 기반의 전문성	▶ 해외 네트워크 및 현장 밀착형 기업 지원